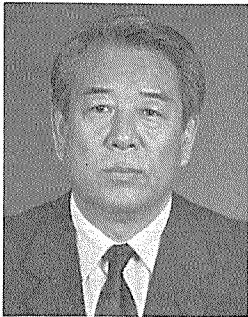


기업의 생존전략으로서의 EDI 도입



김 영 곤

(주)한국무역정보통신
기획관리본부장

요즘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화면에 나타나 자신의 경쟁상대는 서독의 주부라든가 싱가포르의 공무원이라고 말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야 살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는 공익광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지상에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제경쟁력이 중진공업국들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가 우리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몇해전 같은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6위로 발표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할 시점

이라 생각한다.

지금 세계경제는 자본, 기술, 인력,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경이 없는 지구촌 경제권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이 우위에 서서 값싼 상품을 만들기만 하면 팔수있는 공업형 Pyramid 사회(제조업→유통업→소비자)로부터 소비자가 우위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정보형 사회로 변화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상거래 방식도 다양화, Global화 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무처리 및 정보전달의 신속화, 간소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의 기업 경쟁력은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새로운 통합적인 생산, 판매, 유통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달려 있으며 기업의 국제화와 경영혁신은 정보화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또한 급진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상거래를 전자문서 교환거래 방식(EDI)으로 바꾸어감으로써 이러한 체제에 동참하지 않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EDI에 의한 새로운 경영과 상거래방식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인 기업전략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Quick Response, Just-In-Time, Zero-Inventory 등 Total Quality Management도 EDI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다.

80% 이상의 기업이 EDI를 도입·구현했거나 현재 도입과정에 있는 미국은 상거래 문서뿐만 아니라 상품의 견본이나 안내장 그리고 설계도면 등의 정보전달도 EDI방식으로 하기위해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클린턴정부가 이를 정책적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으로 추진중이며, 그중 통신망의 고속화를 위한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초고속정보통신망(Super Highway)의 구축이다.

미국 및 유럽국가들은 이미 20여년전부터 운송, 도소매, 자동차, 식품, 잡화류업계의 수발추업무, 의료보험, 국제무역 등의 분야에서 EDI방식의 거래를 실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드,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정부 주도로 한국의 KTNET와 같은 회사를 설립하여 무역 EDI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철강, 자동차, 제과업, 유통업계에서 수발주업무에 표준화되지 않은 EDI방식의 거래가 미미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89년부터 KTNET가 EDI를 이용한 무역업무자동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EDI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이를 기업경영에 활용하여 경영혁신에 큰 효과를 보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

한 예로 국내 굴지의 전자제품 제조 S사의 경우 EDI를 도입하여 무역업무 자동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7개 부서의 일을 한 부서로 통합 처리함으로써 인력의 절반을 줄이고 하루평균 60시간이 소요되던 처리시간도 1시간 이내로 줄이는 등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지금 케이티넷(KTNET : Korea Trade Network)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업무 자동화사업은 21세기의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무역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범국가적 사업이다.

KTNET는 현재 국제적인 상거래 방식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EDI(전자문서교환) 방식을 무역업무에 적용하여 무역업체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은행, 조합, 세관, 보험사, 선사 등과의 무역업무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KTNET가 올해 1월 무역업무자

동화망과 금융망을 연결시켜 은행과 무역업체간의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수출입 승인업무를 EDI방식으로 자동화하여 상용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국제 추세에 부응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무역업무 자동화가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KTNET에는 1,000여개사의 무역업체와 유관기관이 가입하여 수출입 승인신청, 수출입승인,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수출추천, 수출신고, 수출면허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EDI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은행부문의 무역업무가 안정화되고 관세청의 통관망도 개통됨은 물론 KTNET의 협력업체 운영을 통한 무역업무자동화망 이용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체제가 자리잡아 감에 따라 KTNET를 통한 무역업무 메시지 처리건수가 월평균 30,000건을 상회하고 있어 KTNET의 무역업무자동화가 무역업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전경련이 발표한 '92년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한해 물류비는 총 28조원으로 매출액의 15.7%에 달하고 있는데 수출입화물의 이동이 EDI로 처리될 경우 물류비의 30%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볼때 연간 1,000만불 수출기업의 경우 3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역업체의 국제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시작된 무역 EDI는 앞으로 모든 산업계의 수발주업무, 유통업 등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어 머지않아 국내 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될것이다.

그러나 EDI가 성공적으로 전 산업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몇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EDI는 기존의 업무처리절차를 그대로 컴퓨터화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절차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영방식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관기관과 거래기업의 강력한 협동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EDI는 업무개선과 시스템의 도입이 연관되는 모든 거래 당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실효성과 생산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공동노력 없이는 성과를 이룰 수 없다.

셋째, 공공행정절차와 관련된 EDI는 연관된 법, 규정, 제도의 개선과 절차의 간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전자문서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EDI에 적용되는 전자문서표준은 거래 당사자의 경영과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수용되어야 하고 이를 공동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의 표준전자문서 작성은 필수적이다.

우리 기업들이 최근까지 기업경영에 이용한 정보화(컴퓨터화)는 사람이 손으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컴퓨터에게 맡겨서 처리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EDI방식의 정보화는 업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정보기술이기 때문에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Reengineering은 바로 EDI방식의 상거래를 추진함으로써 달성가능하다고 생각한다.